

2006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메시지 12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성경: 엡 1:22-23, 3:16-17 상, 19 하, 4:16, 빌 1:8

- I.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들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한다—엡 1:22-23, 3:17 상, 4:16.
- A.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산시키시어 우리의 온 존재를 차지하심으로 건축된다—엡 3:16-17 상, 4:16.
 - B.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이다—골 1:27, 2:19, 3:4, 10-11, 15-16, 4:15-16.
 - 1.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요인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이다—엡 3:17 상, 4:16.
 - 2.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함으로써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골 1:27, 3:4, 10-11, 2:19.
 - C.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엡 3:17 상, 19 하.
 - 1. 그리스도의 몸은 무한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표현이다—1:22-23, 3:8, 18, 4:10.
 - 2.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한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정도로까지 그분으로 충만될 것이다—3:17 상, 19 하.
 - 3. 진정한 몸의 생활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이다—고후 1:2, 13:5, 엡 3:17-18, 4:16.
 - D.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용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이시다—갈 1:15-16, 2:20, 4:19, 골 3:4, 10-11.
 - E.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 존재를 더 차지하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것이다—엡 2:21-22, 4:16.
- II.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아야 한다—빌 1:8, 엡 4:16.
- A.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여러 기능들을 가진 사람의 속부분들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갈망, 느낌, 생각, 결정, 동기, 의도를 포함한,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눅 2:49, 요 2:17, 마 26:39, 사 53:12, 42:4, 막 2:8.

- B.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빌 2:5, 고전 2:16 하, 롬 8:6.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그분의 애정, 부드러운 긍휼, 동정—에 있어서까지 그분과 하나였다.
 2.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속부분들을 간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했다.
 - a. 그는 그리스도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속존재 전체를 취했다.
 - b. 바울의 속존재는 바뀌고 재배열되고 개조되었다.
 - c. 바울의 속존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
 3. 진리—정직함, 신실함, 믿음직함—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고후 11:10.
 4.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인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을 그의 타고난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다—고전 16:24.
- C.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빌 1:21 상, 8.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부분들을 체험했다. 그는 성도들을 사모함에 있어서 그분의 속부분들과 하나였다—8 절.
 2. 바울은 그의 타고난 속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살았다—골 3:12.
 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들 안에 있어야 한다—요 15:4 상.
 4.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부분들 안에 거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빌 1:7, 4:23.
- D. 빌레몬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 안에서 사는 몸의 생활의 그림이 있다—7, 12, 20 절.
1. 속부분들이란 내적 애정, 부드러운 마음, 자비를 의미한다—빌 1:8, 2:1, 골 3:12.
 2. 바울의 내적 애정과 자비는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다—몬 12.
- E.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기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살았다.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에 대한 그의 느낌이 되었다—빌 1:8.
1.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관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을 자기 자신의 속부분들로 취했다—8 절.
 2. 바울과같이 우리는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2:1, 골 3:12.
- F. 지체들인 우리가 범사에 머리의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는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할 것이다—고전 12:12-27.
1.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들을 몸과 동일화한다면 몸에서 분리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완전히 몸의 생활일 것이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이다—마 16:24, 엡 4:16.
 2.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부분들 안에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커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이다—고전 12:26-27, 롬 12:15.